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력 징수

정읍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고액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8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은닉자금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고액 체납자와 가족 구성원의 재산조사, 실제 거주지 조사 등 사전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 징수로 500만원의 체납액을 충당하고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동산으로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청렴협력체 회의 실시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이영식 회장과 '깨끗하고 부정한 행정, 청렴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청렴협력체 회의'를 실시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는 부안 지역의 반부패·청렴활동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작년 3월 청렴협력체를 구성하고 반부패·청렴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획감사담당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는 청렴협력체 회의에서 지난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부정한 행정을 만들기 위한 실천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관광형 노을대교 건립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 정운천 국회의원 면담 통해 건립 건의 국회 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29일 국회를 찾아 정운천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관광형 노을대교 건립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정운천 국회의원의 원에게 노을대교가 단순 통행목적의 다리 역할을 넘어 지역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노을대교를 서해안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 '관광형 노을대교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정치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하였다.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3,870억원을 투입해 8.86km의 해상교량을 건설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약 80분이 소요되는 통행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연계관광을 통한 원라인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데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2차로 신설로써 단순 통행목적의 다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인근 지역에 충분한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광형 노을대교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여 부안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 3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이 많은 분들의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새만금잼버리과와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는 29일 부안군청에서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 실천을 다짐했다.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부안군 새만금잼버리과와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는 29일 부안군청에서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 실천을 다짐했다.

부안군은 제25회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오는 8월에 열리는 프레젠퍼리 개최도시로, 성숙한 군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친절·질서·청결의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역시 그에 맞춰 청렴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은 "부안군 새만금잼버리과와 청렴 협력체로서 활동하며, 청렴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바람직한 문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행정지도 최신판 배포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정읍시, 지명·도로·주요 시설물 등 변동사항 반영 제작

정읍시가 현재 정읍 지역의 모습과 다양한 정보를 담은 행정지도 최신판을 제작해 배포한다.

시는 지난 2019년 제작된 행정지도를 보완 수정해 시의 역동적인 발전 모습을 담은 5만분의 1 축척의 행정지도 2,000부를 제작했다.

시는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 전문가와 각 부서, 읍면동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행정구역과 지명, 도로 등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후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지도를 최종 완성했다.

행정지도 앞면에는 정읍시 전도를 수록해 등고선과 행정구역명, 경계, 주요 관광지, 하천, 공원 등을 표기했다. 뒷면에는 정읍시정을 중심으로 주요 동 지역(시가지)를 확대한 시가지와



정읍시가 현재 정읍 지역의 모습과 다양한 정보를 담은 행정지도 최신판을 제작해 배포한다.

정읍시 주요 시설 전화번호, 정읍 9경 등을 수록해 지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이번엔 제작된 행정지도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정읍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행정지도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불법 안내판 통합관리

정읍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 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안내판을 통합 관리한다.

시는 주요 도로변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 등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이정표와 길안내 표지판 등 불법 안내 표지판 정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불법 안내 표지판은 마을 주민과 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면서 정보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협소한 인도와 도로변 등에 제각각 설치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감곡면 등 주요 대로변 4개소에 통합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칠보면과 태인면 고부면 3개소에 통합안내판을 추가 설치했다.

통합안내판 설치사업은 교차로와 인도,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고, 하나의 지주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통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후죽순 설치한 안내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찾아 통합안내판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로 위의 불합리한 시설물을 줄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재개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모유수유클리닉'과 '임산부 건강교실'을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유수유클리닉'은 국제모유수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올바른 수유방법과 모유수유 자세교정 등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15일까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에 운영한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출산전 준비와 산후관리로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11월 22까지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에 운영한다.

지난 28일에는 맘스비터 센터장을 초빙해 올바른 모유수유 준비를 위한 식이요법과 자가관리법, 우는 아기 달래기와 수면교육 등을 주제로 군치매안심센터 1층 컴퓨터실에서 진행했다.

고창군은 출산이 행복한 고창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과 임신출생 축하용품 50만원 지원, 관내 분만진료비 지원과 출산이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지원을 추진하여 대상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